

재브라질 한인사회와 문화정체성

최금좌*

<요약문>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이민인 재브라질 한인사회(1963년 2월 12일 도착)는 20세기 말 브라질 사회가 가장 닳고 싶어 하는 “모범적 이민 집단”으로 지목되었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여성의류제품을 생산해내던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2006년 “한국 문화의 날”을 제정하여 한국문화를 브라질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여러 단체들이 단결하여 준비하는 행사를 통해,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브라질 사회에 한국과 한국문화를 친숙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대도시 상파울로에 모여 살던 한인들은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를 계기로 브라질 26개주 주수도(州首都)로 이주하여 여성의류제품의 소매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브라질 전 지역의 그들의 존재는 자신들의 상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수입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2010년 상파울로 시정부의 봉혜찌로 “코리아타운” 지정과 K-pop의 붐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 정부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

주제어: 재브라질 한인사회, 한국 문화정체성, 한국축제, “한국 문화의 날”, K-pop, 한국 상품의 상업화

*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화 현상은 오늘날 자본 상품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세계 총인구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2013년 2월 이민 50주년을 맞게 되는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이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5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이민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2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으로 재이민했기 때문이다. 원래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저개발국가에서 개발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재브라질 한인들의 재이주 현상은 1970-1980년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인들의 북미로의 대이주물결과 일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0년 브라질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을 계기로 초국가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목되어, 오늘날 인류학 사회학 국제정치학 경제학 등 여러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의 주된 이유는 그들의 경제활동이 브라질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초국적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시장이 개방되기 직전까지,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메트로폴리탄인 상파울로에 집중적으로 모여살며 “제품(confecção)”이라는 여성의류업 분야에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런데 브라질 시장개방 정책을 계기로 그들의 활동은 브라질을 거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자바 시장(Jobber Market)과 한국의 동대문과 남대문, 그리고 중국의 하청공장을 잇는 초국적 경제활동으로 확대되었다. 더구나 그들의 경제 활동 영역은 1990년대 한국기업들의 본격적인 대브라질 진출과 맞물려 세계화 내지는 초국가주의 현상의 심화와 함께 끊임없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98년 한국의 IMF 경제위기 때에는, 그들의 이러한 경제활동은 유감없이 발휘되어,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유일한 무역 흑자지역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이산집단의 초국가적 활동이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 학자들은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새로운 역할과 특성을 조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브라질 한인사회 역시 21세기 브라질 룰라정부의 출범과 신흥국가로서 브라질 부상과 함께, 이민 50년만에 브라질에 정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재브라질 한인회가 재브라질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이루어낸 성과, 즉 자신들의 상업활동 지역이자 거주지역인 봉헤찌로(Bom Retiro)를 상파울로 시청으로부터 “코리아타운(Korea Town)”으로 지정받은 것은, 브라질 사회가 재브라질 한인사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 있

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봉헤찌로는 재브라질 한인들의 경제적 활동은 물론 한국문화까지도 브라질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모국 또는 거주국이라는 민족국가의 틀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국과 거주국의 경계를 초월하며 다중적 관계 속에서 기회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1990년을 전후로, 즉 공식 이민 30년 만에, 그동안에 닦아놓은 경제적 기반으로 일찌감치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1990년 시장개방과 1994년 헤알(Real) 화폐경제안정정책의 성공은 재브라질 한인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 과거 30년 동안의 꾸준한 북미로의 재이주물결을 줄어든게 했다. 그리고 브라질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브라질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때 일부 미국으로 재이주했던 사람들이 브라질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¹⁾

이를 계기로 브라질 사회도 재브라질 한인사회를 브라질 사회내의 성공한 소수민족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따라서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20세기 말 브라질 사회가 가장 닳고 싶어하는 ‘모범적 이민집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8년 브라질의 IMF 경제위기와 2002년 톨라정부의 소득이전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 (Bolsa Família)’ 정책은 상파울로에 집중되었던 재브라질 한인사회를 브라질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때마침 브라질에 상륙한 K-pop의 열풍으로 한국과 한국문화와의 거리감을 좁혀, 재브라질 한인사회에 대한 친밀감을 갖게 하며, 그것은 한국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즉,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여성 의류 제품은 물론, 한국 상품의 브라질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은,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그동안의 수동적인 자세를 바꾸어 적극적인 자세로 브라질 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 재브라질 한인회가 여러 단체와 조직들의 협력을 받아 추진한 2006년 “한국 문화의 날”행사가 바로 그것인데, 그 이유는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한국문화와 연계시켜, 그것의 상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실 재브라질 한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브라질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브라질 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한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1년의 군정을 종식시키고 들어선 민정의 일곱 번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그동안 브라질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품의 생산과

1) 브라질 헤알(Real) 화폐의 가치상승으로 많은 한인들이 이 때 부동산을 구입하는 현상을 보였다.

도매업을 그만두고 소매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브라질의 주요 주수도(州首都)로 이주했는데, 오늘날 이들의 존재는 오히려 K-pop을 앞세운 한인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민 50년이 되는 오늘날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성격은 1960년대 초기이민의 성격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따라서 필자는 브라질 콜로르(Collor)대통령이 1990년 실시한 시장개방정책을 전후로, 1990년 이전을 한인들의 브라질 도착과 적응 시기로, 그리고 1990년 이후를 한인들의 브라질 정착과 동화시기라고 정의하며,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바 있다.²⁾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위의 마지막 시기인 1990년 시장개방정책 이후를 다시 세분해서, 1991-2000년 사이와 2001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브라질 사회 내에 존재하는 동양계 이민사회

오늘날 브라질 총인구 1억 9,200만 명 중, 아시아계 이민자 비율은 2.1%이다 (IBGE, 2010).³⁾ 약 208만 명에 이르는 동양계 이민자들은 주로 중국계(약 20만 명) 일본계(약 150만 명) 한국계(약 5만 명)이다. 이들은 약 70%가 브라질 남동부 상파울로州에 그리고 나머지 30%는 남부 파라나(Paraná)州, 북부 파라(Pará)州, 중서부 마또 그로소 도 술(Mato Grosso do Sul)州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다.⁴⁾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주로 남미 최대의 메트로폴리탄인 상파울로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며,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의 최근자료는(2010), 최근 10년 동안 황인종 인구(원주민 포함하여 브라질 총인구의 0.8% 차지)가 173.7%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⁵⁾ 즉 자신이 황인종이라고 표시한 인구가 2000년 76만 1천 명에서 2010년 208만 명으로 증가한 것인데, 그 원인은 1) 인구의 자연적 증가, 2) '데카세키'로 알려진 일본계 브라질 노동자들의 브라질로의 귀환,⁶⁾ 3) 중국과 한국 이민의

2) 최금좌, “신자유주의 시대 재브라질 한인 사회의 성격과 전망,”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총서』 (2007).

3) 브라질의 아시아 이민에는 중동 사람들도 포함된다. 19세기 말부터 레바논인과 시리아인들이 본격적으로 브라질로 이민하였다.

4) 브라질에 존재하는 5,564개의 도시 중, 동양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10개 도시는 파라나(Paraná)州에 5개, 상파울로(São Paulo)州에 4개, 아마존(Amazonas)州에 1개 도시가 있다(Brasileiros asiáticos, in: Wikipédia).

5)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는 매10년마다 인구조사통계를 새로이 발표하고 있다.

6) 오늘날 일본 본토에는 약 70만의 일본계 브라질인들 즉 데카세키들이 3D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 외채국으로 이름을 떨치던 브라질을 먹여 살리는 젓줄 역할을 했다.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⁷⁾

해발 750미터 위에 위치한 도시 상파울로는 오늘날 브라질 상공업의 중심지이다. 비록 아열대에 위치하지만,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필요 없는”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 19세기 후반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유럽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브라질 북동부의 가뭄을 견디지 못한 농촌노동자들도 남부와 남동부로 향도이촌 했는데, 주로 이 도시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중반에는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여러 이민족들—일본 한국 시리아 레바논 나이지리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사람들—이 도착하여, 이 도시를 발전시켰다. 오늘날 도시 상파울로는 그 크기나 인구적인 측면에서 서울과 비슷하다.⁸⁾ 하지만 격심한 빈부의 격차로 뉴욕이나 멕시코시티처럼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한 도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브라질 제국시대(1822-1888) 이민정책은 국가경제발전정책으로 유럽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브라질 국민들을 “백인화”시키고 또한 “문명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1890년까지 동양계 이민은 금지되어 있었다(헌법 528조). 그러나 공화국 수립이후, 브라질 정부의 이민정책은 전면 수정되어, 브라질 의회가 1892년 헌법 제97조를 비준하여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했다.

브라질 정부는 우선 1895년 11월 5일 일본과 우호협정을 맺고,⁹⁾ 1897년에는 일본이민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세부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커피의 과잉생산과 그로 인한 국제시장에서의 커피가격 하락은 이러한 계획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1901년 커피가격이 회복되자, 브라질 정부는 본격적으로 일본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하며 이민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당시 브라질 지식인들은 공화국의 이 새로운 이민정책이 브라질 “백인화”정책과 모순되었을 뿐만 아니라,¹⁰⁾ 당시 황인종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여 “무서운 속도로 자신의 종족과 문화를 퍼트리며,”¹¹⁾ “위험한 인종” 혹은 “두려움의 대

7) 자신이 흑인 혹은 흑인혼혈이라고 표시한 인구도 증가하였다.

8)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세계 제7대 도시이며, 인구밀도에서는 제2대 도시이다.

9) 이로써 황인종의 이민을 거부하였던 1890년 헌법 제528조가 취소되었다.

10) 당시 브라질 정부의 “백인화” 정책은 유럽 백인 이민자들과의 인종적 혼합으로, 브라질 인구가 1억이 되는 시점에서 브라질 국민전체가 백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누엘 데 올리베이라 리마(Manuel de Oliveira Lima)와 같은 학자는 브라질 국민이 “하위 인종”인 일본인들과의 인종적 혼합을 두려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브라질 외교부에 제출한 바 있다.

11) 브라질 사회의 황인종들에 대한 두려움은 제국주의를 앞세운 일본이 1895년 중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그들의 일본인들에 대한 편견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습관과 종교 때문에 브라질인들과 절대 인종적 혼합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브라질 사회에 영원히 “동화되지 않을 민족”이라는 것이었다. 일본인들에 대한 편견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프란시스코 조제 데 올리베이라 비아나(Francisco José de Oliveira Viana)는 자신의 저서 “남반부의 브라질

상”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커피농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7년 “이민과 식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중국과 일본계 이민을 받아들일 근거를 마련하였다.¹²⁾ 오늘날 브라질 사회는, 20세기 초반 이런 과정을 거쳐 브라질에 도착한 동양계 이민 수용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것은 이 동양계 이민자들이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브라질 사회에 공헌한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도시 상파울로에서는 풍부한 식재료로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아랍 그리스 일본 중국 한국 본토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요식업이 발달한 도시가 되었다. 특히 일본계 농업이민자들의 브라질에 존재하지 않았던 동양의 야채와 과일—감 배추 무 파 갖 등—의 생산과 공급은 오늘날 브라질 사회의 식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동양의 ‘젓가락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식당에서 비싼 ‘스시’를 먹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신분상승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이민으로 이루어진 브라질은 1966년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가 ‘인종적 민주주의(Deomocratismo Racial)’와 ‘열대학(Tropicologia)’을 완성시키며, 향후 다른 나라들이 일찌감치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수용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킨 브라질 다문화주의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오늘날 세계화시대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 만한 본보기 국가가 되고 있다.

1. 중국계 이민

동양계 이민의 브라질로의 이주는 자국의 서양에 대한 문호개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문호개방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1840년 (일본 1854년, 한국 1876년)으로, 이들은 1900년 브라질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다(일본 1908년, 한국 1963년).

오늘날 중국이민자 20만 명 중, 13만 명이 대도시 상파울로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주로 파스텔 가게나 소규모의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문화—식당 침술 무술 의술 그리고 화약으로 만든 불꽃놀이—는 물론, 12간지로 보는 오늘의 운세 등—를 브라질 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브라질 도착 시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들(Populações Meridionais do Brasil(1918))와 “백인화” 사상의 추종자이자 또한 당시 브라질 최고의 의사 니나 호드리게스(Nina Rodrigues)의 중의 우월성 주장이었다.

12) 그것은 19세기 후반부터 1920년까지 브라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커피농장에서 일할 노동력의 부족 때문이었다. 그동안 커피농장에서의 노동력은 이태리 정부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태리 노동자들이 하였다. 그런데 1902년 이태리 정부의 이민보조금삭감은 이민송출 중단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시기는 1810년 포르투갈 정부의 브라질 식민지 개발정책에 의해 이주되었다. 당시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쿨리(culis)'로 알려진 중국 노동자들을 리오 데 자네이로 철도사업에 투입시키기 위해 23,000명을 데려올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1814-1893년 사이 겨우 3,000명 정도를 이주시키는데 그쳤다.

브라질 왕실은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브라질을 차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리우 데 자네이루에 위치한 왕실 식물원 자르딩 보따니꼬(Jardim Botânico)와 '호드리구 데 브레이파스(Roderigo de Freitas)' 호수 근처에 대단위의 중국차 밭(6,000수)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855-1866년 사이 수 백 명의 중국인들을 데려왔으나, 차 밭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곧바로 이웃의 농장이나 당시 막 형성되고 있던 인근의 도시로 흘러들어갔다.¹³⁾

두 번째 시기는 공식 이민 시기로, 1900년 8월 15일 107명이 증기선 말란지(Malange)를 타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거쳐 리오 데 자네이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상파울로 이민수용소에 수용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파울로에 정착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50년대 전쟁과 기근을 피해 중국인들의 브라질로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들은 이민초기 언어와 일자리로 고통 받았으나,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시기는 1990년 브라질의 시장개방과 21세기 룰라 정부의 대중국과의 밀월정책으로, 중국계 이민이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은 최근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브라질의 제1수입국으로 올라섬에 따라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문화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일본인 촌' 리베르다지(Liberdade)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중국의 사자탈춤, 무술 등 문화공연을 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수 십 개의 기존 일본 상점들을 사들여 중국 식당과 식품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상파울로 도시 곳곳에는 이들이 운영하는 짬뽕제품 전문유통매장도 눈에 띈다.

2. 일본계 이민

아시아 이민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일본계 이민이다. 이는 자국의 높은 인구 밀도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일본 황실의 의도와 브라질 정부의 부족한 농업 노동력 충당 필요성이 일치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양국은

13) 이 때 역시 브라질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간에 이들에 대한 찬반논쟁이 격렬했는데, 이들을 찬성한 사람들은 페루 쿠바 미국 등지에서 좋은 평판 때문이었고, 이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들과의 인종적 혼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1895년 11월 5일 최초의 조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1897년 8월까지 이민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국제시장에서의 커피 값 하락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브라질 커피가격의 회복과 일본의 1905년 러일전쟁의 패배는, 1908년 6월 15일 165 가구(781명)의 최초의 일본농업이민으로 이어졌다. 이는 1907년 11월 일본인 기업가 류 미즈노(Ryu Mizuno)가 상파울로 州정부와 3,000명의 농업이민협정을 맺어 성사된 것으로, 그들은 카사도 마루(Kasato Maru)를 타고 산토스(Santos)港에 도착했다. 이 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과 다른 州정부들은 상파울로 州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브라질 언론은 그들을 “깨끗한” 민족이라고 묘사하며, 상파울로 州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늘날 브라질은 일본본토를 제외하고 일본인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일본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1924년 일본이민 입국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와 캐나다도 일본이민을 금지하였지만 브라질은 유일하게 일본이민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브라질은 1993년까지, 즉 일본정부의 국제협력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인들의 해외이민을 종식시키겠다는 성명을 냈을 때까지, 약 25만 명의 일본인들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4대에 걸친 일본 이민의 수는 그 후손까지 합쳐 약 150만 명에 이르는데, 브라질 총 인구 1% 미만인 이들 일본인 후세들은, 낮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 상파울로 주립대학교(USP) 교수 8%, 학생 15%를 차지한 바 있다.¹⁴⁾

일본이민자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브라질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상파울로 州정부의 가족단위의 농업이민정책 때문이었다. 즉 상파울로 州정부는 독신남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신혼부부나 혹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만을 농업이민자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 역시 원래 농민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곧바로 도시 상파울로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1912년부터 폰지 데 사르제다스(Conde de Sarzedas)거리에 ‘일본인 촌’을 형성하였다. 그 지역은 비록 평평하지 않은 경사진 곳이었지만, 192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온 가난한 일본이민노동자들에게 값싼 다락방을 제공할 수 있었기에 꾸준히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재브라질 일본커뮤니티가 형성된 이후, 1950년대 도시 상파울로가 팽창하게 됨에 따라, 재정부족을 겪던 상파울로 시청은 재브라질 일본커뮤니티에게 이미 형성된 ‘일본인 촌’ 바로 옆에 위치한 리베르다지(Liberdade)區를 새롭게 개발토록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오늘날 일본인 상점 식당 호텔이 들어선,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인 촌’을 넘어 ‘동양인 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4) Leite, José Roberto Teixeira, *Brazilian Asia (Korea-China-Japan): Images of the immigration and daily life of Asians in Brazil*,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2002).

3. 한국계 이민

제1차 농업이민 103명이 1963년 2월 12일 네덜란드 선박 ‘찌짜렌카(Tjitjalenka)’를 타고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한 것이, 대한민국 수립이후 첫 공식이민 송출이었다면,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1888년 노예해방을 전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민물결의 꼬리에 해당하는 거의 마지막 수용이민이었다.

1960년대 제5차에 걸친 약 1,300명의 한국농업이민이 브라질에 도착했다. 그들은 브라질의 토지정책에 따라 우선 다른 사람들 소유의 농장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이민자 대부분은 북한출신으로,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독교인이나 사업가였고 또한 당시 한국사회의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농업이민 계약기간 3년을 미처 채우지 못한 채 도시 상파울로로 이주하였다. 오늘날 이들의 농업이민 실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1950년대 쿠비체크(Kubitschek) 대통령의 원대한 경제발전계획 “50년의 발전을 5년에!”라는 슬로건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브라질 사회내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향도이촌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한국 농업이민을 금지시켰다. 농업이민이 실패하자 한국 정부는 1971년 외무부 산하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기술이민을 추진하였다. 약 1,400명의 기술이민자들이 비행기로 브라질에 도착했는데, 이들 역시 서류상의 엔지니어였을 뿐, 실제로는 대학졸업장을 갖춘 고학력 출신의 중산층이거나,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던 상인들이었다.

농업이민으로 대도시 상파울로에 정착한 초기 한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들어간 물건들을 상파울로 근교의 일본 농장에 행상으로 팔았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200불이상의 외화반출을 금지했기 때문으로, 그들은 대신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나갔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더 이상 팔 물건이 없게 되자, 직접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때 1970년대 비행기로 브라질 땅에 도착한, 남대문 동대문 출신의 한인들이 이것을 브라질 한인사회의 중추사업인 “제품”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원래 도시 상파울로에서 여성의류를 생산하던 사람들은 유대인과 아랍인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이민을 시작한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제2세대들이 브라질 주류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1970년대 그것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없었다. 바로 이 시점에 한인들이 유대인의 지역이었던 봉헤찌로에 진출하여, 이 분야를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재브라질 한인들의 “제품”이 성장하게 된 데에는 상파울로의 기후가 한 몫했다. 비록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높은 고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하루에 사계절이 있다고 말할 정도도 기온의 차가 심해, 옷을 자주 갈아입는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다.¹⁵⁾

Ⅲ. 한국이민

1959년 브라질과의 외교 수립 이후, 대한민국 첫 공식 농업이민이 1963년 2월 12일 브라질 산토스港에 도착하였다. 한국 농업이민의 경우도 일본 농업이민과 마찬가지로 가족단위로 승인받은 것으로, 제1차 농업이민은 17세대 92명과 11명의 전향 군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기 이전에도 브라질에는 이미 한국인들이 존재하였는데 그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국적으로 일본 농업이민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브라질로 이주한 사람들과 1956년 인도를 거쳐 브라질 땅을 밟은 50명의 반공포로들이었다. 이들의 존재는 실제적으로 군정의 대 브라질 이민정책 수립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1963년 이후 브라질 땅을 밟기 시작한 한국 농업이민자들의 브라질 사회적응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한국 농업이민의 정착을 돕는 과정에서 브라질 사회에 동화되었던 이들이 재브라질 한인사회를 구심점으로 모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다. 특히 반공포로의 경우 당시 남북이 대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리우 데 자네이루에 위치한 재브라질 한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이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나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지도자들 역시 이북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컸다.

1. 1990년 이전의 한인사회

앞에서 언급했듯이, 1960년대 초기는 이민이 태동했고, 1963-1966년 사이에는 5차에 걸쳐 농업이민자 1,300명이 배를 타고 브라질에 도착하여 곧바로 도시 상파울로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외무부 산하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해 모집된 기술이민자들 1,400명이 도착하여 “제품”을 발달시켰다.

1970년대는 불법이민의 시기인데, 그것은 농업이민의 실패로 브라질 정부가 1968년 한국이민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통해 브라질에 도착하였다. 이 외에도 1960년대 말부터는 서독의 광부와 간호원들 일부가, 1970년대 초반에는 태권도 사범들이 그리고 베트남에서 일하였던 계약노동자들이 제3국을 통해 브라질에 도착하였다.

1980년대는 연쇄 이민의 시기로, 이미 브라질에 정착한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하여, 이민이 꾸준히 유입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 재브라질 한인들의

15) 원래 브라질 패션을 선도하던 도시는 리우 데 자네이루였다. 1960년 브라질 정부가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천도하였지만, 리우 데 자네이루는 군정이 종식되었던 1980년대 중반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것이 정부의 체제가 민정으로 바뀌면서, 페니찌(Fenite)라 불리는 브라질의 가장 큰 패션쇼가 리우에서 상파울로로 옮겨오기 시작하였다.

중추사업인 제품이 자리를 잡게되었는데, 당시 한인들 96.84%가 상파울로의 아클리마쥬(Aclimação)區에 살며, 약 90%가 봉헤찌로(Bom Retiro)와 브라스(Brás)區에서 “제품”에 종사하였다.¹⁶⁾

하지만 총 구성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이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그들의 존재는 “양날의 칼”로 작용하였다. 한편으로 그들은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갈등원인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업계를 성장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잃어버린 10년”으로 정의되는 1980년대 브라질의 경제상황 속에서,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오히려 동족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풍요의 시대”를 열을 수 있었다. 이 시기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상대적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¹⁷⁾ 전문직으로 브라질 사회에 진출해 있던 1.5세들이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한인사회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 또 다른 현상은 『한국일보』와 『뉴스브라질』과 같은 신문들이 창간되기 시작하고, 후손들의 정체성을 염려한 사람들은 사재를 털어 토요한국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열대문화』 및 『신세대』와 같은 문예지를 창간되었는데, 이것은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먹고 사는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1990년대 이후의 한인사회

1990년 브라질 시장개방정책은 브라질사회뿐만 아니라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¹⁸⁾ 브라질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실시한 이 정책은 그 동안 거리상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과 한국문화는 물론 한국 상품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하였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브라질 사회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재브라질 일본인사회는 일본본토에 일하러 갔던 데카세키들을 통해 브라질에 상륙한 “가을 연가”와 같은 초창기 한류드라마를 비디오로 즐기며, 한국과 재브라질 한인들에게 친밀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0년 후, 즉 21세기 한인들이 브라질 사회에 적응은 물론 동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브라질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봉헤찌로區에 새로운 한인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6) Choi, Keum Joa. “Além do Arco-Íris: A Imigração Coreana no Brasil(무지개를 넘어서: 브라질 한국 이민사),” 브라질 상파울로대학교 (USP- Universidade de São Paulo) 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17) 1990년 시장 개방 정책의 바람이 불기 직전까지의 통계임.

18) 참고로 1990년을 전후하여, 초창기 한인들의 수는 삼분의 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삼분의 일이 사망하고, 또 다른 삼분의 일이 북미로 재이주 하였기 때문이다. (열대문화 제7권, 1990)

1) 1990-2000년

(1) 업종의 다양화, 계층분화 그리고 지방으로의 이주

브라질의 시장개방정책이후,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가시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오뚜기’ 혹은 ‘롯데’와 같은 대형 한국 식품점, LG 가전 대리점, 한국 비디오점 등의 등장과, 자체라디오 방송국 개국, 교통의 발달로 인한 한국과의 빈번한 왕래, 역이민의 증가였다. 따라서 한 때는 한인들의 브라질 사회로의 동화가 오히려 역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브라질로 새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제품에 실패한 사람들은 봉헤찌로에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브라질의 주요 州의 수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때 등장한 또 다른 현상은 업종전환이었다. 과거 재브라질 한인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집에서 밑반찬이나 김치를 만들어 파는 반찬가게, 한국식 빵을 만들어 파는 빵집을 겸한 미니 슈퍼마켓, 정육점이나 생선회를 포장해서 파는 식품점, 식당, 떡집,¹⁹⁾ 전자제품 수리, 구두수선, 미장원 이발소, 사진관, 노래방, PC방, 골프연습장 그리고 ‘이비우나(Ibiuna) 골프장’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 제품의 “고급화”

1990년의 시장 개방정책과 1994년 헤알 정책(Plano Real)²¹⁾ 성공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제품” 업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일으켰다. 따라서 제품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샘플을 구하기 위해, 유럽 미국 한국 등을 여행하기 시작했지만, 시장개방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브라질 지방으로의 이주와 미국으로의 불법이주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히 1999년 1월 브라질의 재정위기 때는 재브라질 한인사회 구성원 25% 정도가 미국으로 재이주하였다. 따라서 상파울루市에 거주 한인들의 수는 70%로 감소하였고, 그 중 65%만이 제품에 종사하였다²⁰⁾

2) 2001년 이후

(1) 진정한 “한인촌”으로 거듭난 봉헤찌로

재브라질 한인들은 봉헤찌로에서 여러 인종들—포르투갈인 스페인인 이태리인 유대인 아랍인 그리스인들 러시아인 리투아니아인 폴란드인 일본인 볼리비

19) 파라과이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식 떡집을 차림.

20) “Feras do vestibular: O enigma dos coreanos no Brasil”, in *Veja São Paulo*, 1998.5.13

아인 아르메니아인—과 “브라질식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다. 유럽이민이 먼저 자리를 잡은 이곳에, 1960년대 한국인들이, 1990년대에는 볼리비아인들이, 그리고 2000년대에는 브라질 남부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진출하였다.

봉헤찌로는 최근 10년 동안 재브라질 한인들의 상업중심지뿐만 아니라, 주요 거주지로 변모하였다. 브라질의 경제정책 변화—1994년 헤알정책(Plano Real)과 1999년 IMF사태—에 따라, 한인들이 비교적 집세가 비교적 저렴한, 봉헤찌로로 옮겨온 것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위치했던 한인들의 학원·유치원·교회·점·식당·식품점들이 봉헤찌로에 집결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 좋은 예가 꼬헤이아 지 멜로(Correia de Melo) 거리에 ‘다래’나 ‘석정’과 같은 한국식당 7개가 상업 중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²¹⁾

오늘날 봉헤찌로는 명실공이 “한인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이트 사람들이 차를 타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걸어서 갈 수 있고, 또한 포르투갈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국말만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루스공원에는 한인노인들이 모여 아침체조를 하는 모습이나, 젊은이들이나 중장년층이 출근 전 배드민턴과 같은 간단한 운동하는 모습들은 마치 한국을 연상시킨다.

(2) 브라질 사회로의 동화

봉헤찌로가 여러 다양한 민족의 산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봉헤찌로에 남아 있는 그들의 삶의 자취와 건축물이다.²²⁾ 그런데 한인들은 상업지역—주제 빠울리노(R. José Paulino), 아이모레(R. Aimore), 프로페소르 롬브로조(R. Professor Lombroso) 거리—를 제외하고 1990년대 초까지 눈에 띄는 건물이나 협회를 전혀 설립하지 않았다.²³⁾

21) 2006년 한인닷컴 업소록에 의하면, 정육점이나 생선회를 포장해서 파는 식품점이 80개로, 식당은 133개로,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14개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2) 이태리계 이민자들은 그라썬 거리(R. da Graça)의 천정이 높고 창고가 있는 주택들과 극장 “마르코니(Marconi) 극장”을; 그리스계 이민자들은 실바 뻬투 거리(R. Silva Pinto)와 줄리오 폰세이썬 거리(R. Julio Conceição)의 제과점 식당 바(Bar)를 운영하며, “그리스인 협회 아크로폴리(Acropole)”를; 스페인계 이민자들은 주제 빠울리노 거리(R. José Paulino)와 실바 뻬투(R. Silva Pinto) 교차로에 있는 “코린치아(Corintia) 스포츠클럽”을;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은 그라썬 거리(R. da Graça)의 “포-브 드라마 예술협회”를 남겼다. in: 최금좌 “브라질 상파울루시의 코리아타운 ‘봉헤찌로(Bom Retiro)’,” 『재외한인연구』, 제24호(2011).

23) 재브라질 한인사회도 경제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한인들만의 건물을 집단적으로 소유하려는 시도가 두 차례 있었다. 두 차례 모두 전태권도 협회 회장과 전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상인이 추진하였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는 1980년대 말 봉헤찌로 입구에 낙후된 옛 건물을 재정비하며, ‘패션 센터 루스(Fashion Center Luz)’를 세웠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며, 그는 ‘한인들만의 상가’를 개관하였으나,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분쟁으로 건물의 경영권이 브라질인에게 넘어감으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 다시 2000년대 초반 투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한인들이 봉헤찌로에 한인단체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미국으로 재이주하지 않고 브라질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는 증거였다: 1998년에는 솔론(R. Solon 1018)거리에 한국-브라질 정식학교 '폴레지오 폴리로고스(Colegio Polilogos)'가 설립되었고, 2004년에는 마따라주(R. Mataraso 20)거리에 천주교 브라질 한인 이민교회(Associação Brasileira Católicos Coreanos)가 이삿랑가區 아구스티뉴 고미스(R. Agostinho Gomes, 313)로부터 옮겨왔다. 이 뿐만 아니라, 한-브라질 무역의 증가로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차 봉헤찌로를 방문하자, 봉헤찌로에 두 개의 큰 호텔—프린스호텔와 루스 플라자—과, 루스 공원 가까이 규모는 작지만 리모델링한 '뉴월드 호텔'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3) 패션의 메카로 떠 오른 봉헤찌로

2011년 재브라질 상파울로 총영사관 발표자료에 의하면, 재브라질 한인 98%가 도시 상파울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그 중 60%가 여성의류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인소유매장은 봉헤찌로 지역에 1,200-1,300개,²⁴⁾ 브라스 지역에 1,800여개로 집계되었다.²⁵⁾ 하루에 봉헤찌로를 드나드는 한인들의 수는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80%가 여성의류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⁶⁾

오늘날 재브라질 한인들이 브라질의 산업 특히 의류생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외국 수입명품과 브라질 고가 브랜드를 제외하고, 2004년 총 40%에서 2010년 총 60%에 이르고 있다.²⁷⁾ 봉헤찌로는 이웃 남미 국가들로부터는 물론, 멀리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도 상인들이 들어오고 있어, 오늘날 명실공히 세계 패션의 메카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즉 브라질 지방의 소매상인, 파라과이나 볼리비아와 같은 남미국가들의 상인은 물론, 더 멀리 중미의 도미니카공화국, 북미 미국의 자바시장 그리고 아프리카의 앙골라의 상인들이, 값싸고 질 좋은 그리고 유행을 선도하는, 한인들이 만든 상품들을 구매하러 오는 곳이 되고 있다.²⁸⁾

자자를 모아 브라스(Brás)에 또 다른 한인 상가를 건설을 시도했는데, 건물이 중간에 올라갔을 때 쯤 자살하여 아직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다.

24) KBS 다큐멘터리 3일: "따봉 브라질—패션거리 봉헤찌로 한인 성공기", 2011년 1월 16일 방송 (정승우 PD)은 2011년 봉헤찌로 상인회에 등록된 총 1,500여개의 상점 중, 한인들의 상점이 70%로 밝히고 있다.

25) 2004년 브라질 시사잡지 베자(Veja)의 기사에 따르면, 재브라질 한인들이, 봉헤찌로 상권의 65%(2,000 점포 중 1,300 점포)와 브라스 상권의 33.3%를 장악하며, 브라질 의류생산의 총 40%를 담당하며, 명실공히 여성 의류산업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in: Gusmão, Marcos Buarque de. "Muito além do Bom Retiro", in *Veja São Paulo*, 2004.12.01.)

26) KBS 다큐멘터리 3일: "따봉 브라질—패션거리 봉헤찌로 한인 성공기", 2011년 1월 16일 방송.

27) 2011년 2월 재브라질 한국총영사관의 자료.

28) 사실 브라질 패션을 이끌었던 도시는 리오 데 자네이로였다. 그러나 민정이 들어선 1986년부터

(4) 2010년 1월 ‘Korea Town(한인타운)’으로 명명된 봉헤찌로

상파울로市정부는 2010년 1월 봉헤찌로를 ‘Korea Town(한인타운)’으로 명명하였다. 그것은 박동수 회장이 초기 한인회를 맡았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시 있었던 동포와의 간담회 때 요청한 결과였다. 이에 총영사 김순태가 시의회와 접촉하고, 그 결과 상파울로 市정부가 시조례를 바꾸어 봉헤찌로를 문화특구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한인들의 공로—봉헤찌로 활성화와 성장—를 인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봉헤찌로 재개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즉 상파울로 市정부는 봉헤찌로의 일부를 “문화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인타운으로 명명한 것이었다. 이것은 리베르다지區가 1950년대 ‘일본인 촌’으로 명명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²⁹⁾

상파울로 市정부와 서울 시청은 1970년대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상파울로市 오리엔치(Oriente)區에 “한국 공원(Praça da Coréia)”을 건립하였고, 브라스(Brás)區의 트레스 히오스(Três Rios) 거리를 “한국의 거리(Rua da Coréia)”로 명명한 바 있다.³⁰⁾

3. 한인들의 브라질 정착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그동안의 미국으로의 재이주를 포기하고, 상파울로市 봉헤찌로區에 정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작용하였다.

첫째, 1990년까지 재브라질 한인사회에서 제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50대 전후의 이민 1세대들이었다. 그들은 브라질의 경제정책과 교육제도에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자녀들을 브라질 미국학교에 보내고, 대학은 미국으로 보냈다.

터 패션의 중심지는 리우에서 상파울로로 옮겨졌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6년부터 상파울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상파울로 패션 주간(Semana da moda em São Paulo, São Paulo Fashion Week)’을 “브라질 모뎀비 패션(Morumbi Fashion Brasil)”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고 있다. 세계 패션업계가 상파울로의 패션 주간을 주목한 것은 이자벨 폰타나(Isabeli Fontana), 아드리아나 리마(Adriana Lima), 지젤 분첸(Gisele Bündchen) 등과 같은 세계적인 탑모델을 국제무대에 배출했기 때문이다.

29) 당시 상파울로市는 도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일본계 이민자들에게 그곳의 땅을 무상공급하며 그곳의 개발비용과 개발방식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부담시킨 바 있다. 따라서 재브라질 인본인사회는 시청부가 닦아놓은 길옆에 가로등을 설치하며, 그곳을 일본식 건물로 채웠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인 촌’의 탄생배경이다.

30) 2008년 재브라질 한인회 박동수 회장은, 당시 부회장 김송자를 한국으로 보내 서울시장 오세훈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것은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을 위해, 상파울로 이비라뿌에라 공원내에 한국의 보신각 중 건립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서울시청으로 하여금 상파울로 시의회 외교부에 대한민국 공화국 거리(Av. República da Coréia)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는 없다. (2008년 8월 전한인회장 박동수와의 인터뷰)

그리고 자신들도 기회를 봐서 미국으로 재이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1990년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브라질은 미국과는 반대로 BRICs의 부상과 함께 신흥부상국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재브라질 한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브라질을 다시 재평가하며, 브라질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둘째, 1990년대 미국경제의 침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출신의 한국이민자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형성한 자바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켰던 반면, 브라질은 1990년 시장개방정책과 1994년 헤알정책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자바시장으로부터 고급 여성의류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대한항공의 서울-로스앤젤레스-상파울로를 연결하는 직항로가 개항함에 따라서 봉헤찌로와 자바 시장의 무역량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봉헤찌로의 제품업자들은 오히려 “자금을 자본화”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1994년 헤알정책 즉 달러 대 헤알의 환율을 1:1로 유지하여 브라질 화폐가치 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재브라질 한인들은 더 이상 한국여행사를 통해 미국은행에 송금하지 않고, 브라질 은행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1999년 브라질의 경제위기는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급격한 계급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불법재이주했던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브라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택과 상가 매입은 물론 가까운 해변도시 산토스(Santos)나 과루자(Guaruja)에 고급 휴양 아파트들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부동산 투자와 정착 현상은 이미 미국으로 재이주했던 한인들을 다시 브라질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 브라질 시장개방은 봉헤찌로와 자바, 그리고 한국의 동대문 시장과 중국 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1990년대 이전에는 재브라질 한인들이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의 한인들과 결혼이나 사업을 통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반면, 1990년 이후에는 미국 자바시장의 한인들과 연계하여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동대문·남대문 시장의 상인들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섬유업체나 무역상사들은 봉헤찌로의 한인들의 중요성에 대해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일반원단과 고급원단에 대한 수요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타인종간의 관계

재브라질 한인들의 타인종과의 관계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일본인

과의 관계가 과거 브라질 사회에 적응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했다면, 볼리비아인들과의 관계는 오늘날 제품업자와 재봉하청업자와의 관계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인들과의 관계는 미래로, 제품과 관련된 그들의 업종진출로 미래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1) 재브라질 일본사회와의 관계

초기 한국이민자들—농업이민자와 기술이민자—의 도시 상파울로에서의 적응에 가장 기여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본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Japonês garantido)”이라는 일본사람들의 평판과 상파울로 시내 리베르다지(Liberdade)區에 위치한 ‘일본인 촌’의 존재였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이민촌 형성은 지역적 조건과 직업분야에 따라 그 집결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민 초기 한국인들은 ‘일본인 촌’ 리베르다지(Liberdade)區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글리세리우(Glicerio)거리와 폰지 데 사르제다스(Conde de Sarzedas) 거리 사이에 ‘한인촌’을 형성하였다. 시내와 가깝고 집세가 싸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이민자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대학을 마친 사람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일본인들과의 대화가 자유로웠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초기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짧은 기간 동안 “문화적 충격”을 이겨내고 브라질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브라질 한인들의 브라질 정착에 도움을 준 또 다른 존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국적으로 이주한 한인들과 반공포로였다.

2) 재브라질 볼리비아 사회와의 관계

1970년대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1988년 1988년 2008년 불법체류자 사면으로 브라질 영주권을 획득함에 따라, 볼리비아인들이 한인 “제품”업계의 하청을 받는 봉제업계로 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 재브라질 한인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느질일을 하는 볼리비아인들과의 마찰이 되었다.

3) 재브라질 중국사회와의 관계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재브라질 중국사회와 그다지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왔다. 이민초기 같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간간히 결혼이 성사된 경우는 있으나 사업상 연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여성 의류업인 “제품(confecção)”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원단과 완성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품”과 관련된 의류 약세사리 상인들이 브라질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연변의 조선족인데, 이들은 우리의 남대문 시장에 해당하

는 빈치 이 상꾸 데 마르쑈(25 de Março) 거리를 장악하며, 재브라질 한인 제품업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재브라질 중국사회와 맺는 또 다른 관계는 소매상점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이다.³¹⁾

IV. 재브라질 한인사회와 문화정체성

근대에 형성된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모국과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것은 그들이 가족단위로 “제품”에 종사하며 가정에서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한국문화 습관 유지는, 비록 몸은 브라질에 있지만 언제든지 미국과 같은 제3국으로 이주하려는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에 힘을 썼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1) 食문화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주식으로 쌀을 먹는 나라이다. 게다가 일본 농업이민자들이 풍부하게 생산해 내는 동양 식재료는 한국인들이 브라질 사회에 적응할 때 음식으로 그다지 큰 고통을 받지 않게 하였다. 제1차 농업이민자들은 배를 타고 브라질로 향하는 도중에서도 그들은 배에서 김치를 담아 먹었다. 초기 한인들이 농업이민이라 아직도 상파울로 외곽에 자신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제품에 종사하지 않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한국식으로 농사를 지어 김치는 물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을 담아 재브라질 한인 식품점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한인가정의 저녁 식단은 반드시 쌀밥 된장찌개 김치는 물론 콩나물과 두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브라질 입맛에 길들여진 자녀들을 위해서는 샐러드, 두툽한 비프스테이크, 커다란 생선구이가 오르기도 한다.³²⁾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이나 개업식, 일반 교회행사와 같은 한인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떡 잡채 불고기 김치가 등장한다. 이들이 차리는 상차림은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데, 그것은 브라질의 풍부한 식재료 때

31) 한인 제품업자들은 그동안 제품의 생산과 도매업만을 고집하던 것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브랜드로 브라질 전지역에 자신의 소매상점을 내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개방으로 이윤이 박해졌기 때문이다.

32) 중국과 일본 이민사회 덕분에, 브라질 사회에는 두부가 널리 알려진 편이다. 따라서 한국 식품점에는 두부 콩나물 김치 막걸리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고추장은 본국에서 수입한 고추장보다 값도 싸고 또한 맛도 훌륭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만든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쉽게 맛이 변하는 된장의 경우, 브라질의 열대기후 때문에, “아주 짜게” 만들어지고 있다. 안경자(2011).

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 주중에 일을 하느라고 제대로 잘 먹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인들은 주말에 어떠한 모임에서든 잔치 하듯이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다.³³⁾

한국식당 중에는 식도락가들이 한국에서 즐겨먹던 뽕탕이나 보신탕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 가끔 브라질 일간지 사회면을 부정적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 식당의 특징은 이민 초기에는 주로 이북식으로 만두나 냉면을 제공하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전라도식의 밑반찬을 내놓는 음식점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1990년 시장개방 이후 재브라질 한인들의 식생활을 바꾸어 놓은 것이 떡집과 방앗간의 등장이다. 오늘날 봉헤찌로에는 4-5개의 떡집과 방앗간이 존재한다. 이들의 존재는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계급화”를 나타내는 일면이기도 하지만, 한인들의 백일 돌잔치 결혼피로연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차례와 제사를 한국식으로 회복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브라질 한인들은 한국식으로 설날과 추석을 쇠나. 설날은 일 년 중 가장 뜨거운 때이기도 하고 또한 한인들이 가장 긴 휴가를 지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으로 여행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바닷가 휴양지에서 가족과 함께 수영복 차림으로 뜨거운 떡국을 먹는다. 그리고 추석은 브라질의 봄이 시작되는 때인데, 이때도 역시 한인들은 식품점에서 다양한 송편을 사먹으며 고국의 향수를 달랜다.

상파울로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산후 류머티즘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인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병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모에게 고집스럽게 미역국을 먹이고 있다. 그리고 집안에 난방시설이 되지 않은 브라질에서 산모들은 물론 노약자들도 한국의 전기 온열 매트를 아주 선호하며 사용하고 있다.

2) 衣문화

재브라질 한인들의 경제력이 증대됨에 따라 결혼식 피로연 회갑잔치 돌잔치와 같은 한인들의 축제에는 반드시 한복이 등장한다. 제1차 농업이 브라질 산토스港에 도착했을 때 여성들은 한복을 입고 하선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한복은 한국에서처럼 예복에 지나지 않아, 한인회나 종교단체—개신교회 가톨릭성당 절—의 특별행사에만 입고 있다.

33) 특히 한인들의 축제 뒤에 열리는 뒤풀이 행사장소 즉 브라질 식당 슈하스까리아(Churrascaria)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마늘과 김치를 내놓기 시작하였다. 안경자(2011)는 브라질 사람 가운데에는 어느 한국식당의 김치가 더 맛있다고 할 정도로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녀는 브라질 사람들이 김치를 무조건 멀리 하지 않고 맛보려고 하는 이유를 브라질에 풍부한 마늘과 매운 고추에서 찾고 있다.

3) 결혼문화

재브라질 한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결혼문화는 결혼 청첩인이 열 명이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적은 구성원의 수에 기인한 외로운 이민생활 때문인 것 같다. 초기 농업이민의 경우 같은 배를 타고 인도양 대서양을 지나온 사람들을 ‘동선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을 청첩인으로 초대하여 수백 명의 하객들을 초빙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양쪽 집안이 축의금을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좁은 이민사회에서 하객들이 양가와 모두 친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가는 축의금 접수노트를 복사하여 후일 보답용으로 보관한다.

브라질에서의 한인들의 생활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교통과 통신이 지금과 같이 않았던 1960년대 한국을 떠났을 때의 습관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결혼식 때 신랑 발바닥 때리기이다. 하객 수 백 명을 모시고 거행되는 결혼식 피로연은 주로 브라질 슷불구이 식당, 슈하스카리아(Churrascaria)에서 열리는데, 이 식당에서는 반드시 생마늘과 김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즈음에는 반드시 ‘신랑 발바닥 때리기’ 의식이 거행된다. 안경자는 한국에서 이미 사라진 이 “야만스러운” 혼례 의식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했는데, 그것은 이미 이 의식을 치른 젊은 신랑들이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이다.³⁴⁾

4) 장례문화

브라질은 열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망 바로 다음 날 장례를 치른다. 부고를 받고 벨로리오(Velorio, 시신을 모신 곳)에 갈 때나 발인식이나 입관식에 참석할 때, 한인들은 모두 검은 색 정장을 입는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의상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브라질 사람들과 아주 다른 모습이다.³⁵⁾

2. 한글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인터넷 사이트

1980년대 ‘쌍빠울로 한국학교’를 비롯하여 교회나 성당 소속의 한글학교들, ‘배우리’나 ‘두리 서당’과 같은 사설학원을 포함한 한국학교의 수가 총 17개에 이른 것은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한국문화보존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재브라질 한인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미국으로 재이

34) 안경자. “한인 교육·문화사” in: 브라질 한인이민사 편찬위원회, 『브라질 한인이민 50년사』 (서울, 교음사, 2011) pp. 368-727.

35)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요일 교회나 성당에 갈 때도 정장을 한다.

주할 준비를 하고 있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 즉 그들은 브라질 사회에 동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더욱 갈망하며,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의 문화와 습관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한국어 습득에 더욱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재브라질 한인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여러 다양한 이민국가인 브라질에서 한국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브라질 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널리 경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브라질 최대의 축제인 카니발에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며 행진하는가 하면, 1989년부터 상파울로 주립대학교 문과대학에 한국어 과정을 특별활동으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최근 재브라질 한인사회들의 한국문화와 습관 그리고 언어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물론, 그것을 브라질 사회에 알리는 노력은 특정 그룹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³⁶⁾

3.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이민 초기 우리의 전통 음식—김치 불고기 잡채 시금치—과 의상을 브라질 사회에 공식적으로 소개할 기회는 “이민축제”였다. 즉 브라질은 국가 형성 배경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행사나 학교 행사에 여러 민족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들이 소통할 기회를 갖는 것인데, 이민초기부터 한인들은 이러한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한국음식과 한복으로, 그리고 고전무용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그런데 재브라질 한인회(회장 박동수)가 이민 43년 만에, 한국의 문화를 조직적으로 알리는 시도를 하였다. 그것은 2006년 5월 26-27일 제1회 “한국 문화의 날” 행사는 봉헤저로에 위치한 ‘오피시나 꼴뜨라 데 오스왈두 안드라지(Oficina Cultra de Oswaldo Andrade, Rua Três Rios, 363번지, Santa Inês학교 앞)에서 단결된 한인들의 모습을 보인 행사였다. 이 행사는 매년 5월 네 번째 주말에 거행된다. 2007년 제2회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는 진각사를 비롯한 불교신도들의

36) Associação Brasileira de Universitários Coreanos - ABUC (재브라질 한인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활동과 일자리 정보를 서로 공유),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reanos - Hanin (재브라질 한인회), Associação Gaúcha dos Estudantes Coreanos - AGECE (히오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거주 대학생과 청년 모임), Cultura Coréia (한국이민의 역사와 특징을 보여주는 사이트), Korean Friend (한국의 새로운 음악과 영화를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고, 이와 반대로 한국에 사는 브라질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BrasilCoreia.com (주 한국 브라질인들의 모임으로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한국문화, 유용한 정부기관의 전화번호, 서울 지하철 노선 등을 소개), Coréia Online (한국 기업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브라질 기업들에게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관계나 한국과 한국 기업을 알리는 사이트)

행사참여로 불교문화를 알려 좋은 반응을 얻었고, 2011년 제6회 “한국 문화의 날” 행사는 서주일 한인회장의 지휘와 K-pop의 열풍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 행사는 한인후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행사로서의 의미와 교육 효과는 물론, 이민 1세대부터 시작된 재브라질 한인사회와 한국의 발전상을 브라질 주류사회에 소개하는 홍보행사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브라질문화에 접목시킬 가능성을 살펴보며,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브라질 사회의 일부임을 각인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참고로 2006년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준비한 행사내용은 무용, 태권도, 합창, 전통 혼례, 궁중의상 패션쇼, 스트리트댄스, 밴드, 가요, 사진, 미술, 서예, 도자기, 다도, 한국영화, 전통음식, 한국 제품 전시, 이민역사, 침술 등이 포함되었고, 상파울로 총영사관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영화 등을 소개하였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파울로 州문화국이 무대 조명 스크린 홍보 언론접촉 옥외화장실설치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한 예산은 교민들의 모금과 ‘주재상사협의회’에 특별지원으로 확보되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행사의 규모가 더 커지고 또한 활동자체도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다음은 행사 일정이다(준비위원장-유용일, 준비위원-윤민섭, 황윤재, 김순준, 허재포).

<표 1> 2006년 5월 첫 행사에 참여한 관련기관

주 최: 브라질 한인회 / 상파울로 州정부 산하 상파울로 州문화국
주 관: 민주평통 남미협의회 (회장 주성호);
후 원: 상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권영욱) / 상공회의소;
협 찬: 오투기(Ottugui) 식품점 / 한국외환은행 / Alpha Vision)
참가단체: 브라질대사관 / 상파울로총영사관 / 민주평통남미협의회 / 브라질한인회 / 주재상사협의회 / 대한체육회 / 대한부인회 / 황윤재무용단 / 태권도협회 / 웨딩클라라 / 녹새풍 / 사진협회 / 미술협회 / 도자기협회 / 한국의집 / 어머니합창단 / 우봉서예회 / 한글학교협의회 / 침술협회 / 상공회의소 / 기타 다수교포업체



<그림 1> “한국 문화의 날” 포스터

4. 브라질에서의 한류 열풍

브라질사회에서 “실미도”나 “친구”와 같은 한국영화들은 진작부터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영토와 인구를 가진 브라질에서의 한류바람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 브라질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소비하는 특징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과 브라질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문화적 차이’ 그리고 브라질 사회내에서 존재하는 ‘빈부의 차’ 때문에 나타나는 브라질 사람들의 계층 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적 선호도는 최근 K-pop의 열기로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1) 방송교류 및 직접 방문 페스티벌을 통해 본 한류 현황

2009년, 한-브라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리랑 TV와 브라질 지상파 채널인 TV Cultura(문화방송)는 TV콘텐츠 교류협정을 맺었다. 그 결과 “Arirang Today”라는 프로그램이 “코리아 매거진”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10월 1일부터, 주 1회 1시간씩, 20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하지만 TV Cultura 자체가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으로 지상파 채널 중 시청 점유율이 5%도 되지 않는 데다가 방영 시간대도 목요일 자정부터 새벽 1시여서 지극히 상징적인 TV콘텐츠 교류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같은 시기 시작된, 브라질 케이블 방송사 NET의 24시간 한국방송 “TV Coréia” 채널은 SBS, MBC, YTN, 아리랑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상파울로 주립대학교(USP) 한국학 교수인 임윤정은 이 NET 케이블방송이 초기에는 연령층이 높은 한인시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였으나, 점차 한인청소년들—브라질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드라마와 음악 프로그램에 포어자막을 삽입하여 제공함으로써, 브라질 사회의 한류바람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³⁷⁾

그리고 2011년 9월에는 “MBC 커버댄스 페스티벌”을 위해 한국의 아이돌 그룹 “엠블랙”—1990년대 미국의 아이돌 스타 그룹 Back Street Boys에 해당—의 브라질 방문은 한국과 브라질의 젊은이들이 K-pop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2) “청사모(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의 활동

제브라질 한인사회에서 운영하는 단체 중 하나 “청사모(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는 2003년부터 한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꿈의 콘서트”라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상금이 약 6천불인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주로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데, 이 행사가 브라질 사회에 알려지면서 많은 비한국계 청소년들이 참가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15~20세 청소년이면 아무나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다. 매년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한인커뮤니티라는 성격을 뛰어넘는 브라질 청소년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3) 태권도

브라질사회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태권도 사범들이다. 그동안 브라질 태권도 사범들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문화 보급에도 열심이였다. 그런데 오늘날 태권도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브라질 태권도 사범

37) 참고로 케이블 방송사 NET에 가입하려면 가장 저렴한 월 사용료가 40불 정도이고, 한국 TV는 월 24불로 따로 가입해야 한다. 최저입금이 350불인 나라에서는 중산층 이상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이다.

들이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은, 태권도 사범의 “김치담기 강좌”였는데,³⁸⁾ 이는 브라질 사회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³⁹⁾

이 외에도 최근 고무적인 현상은 태권도가 가라테나 유도대신, 브라질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과외활동에 선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권도의 보급 효과는 한국어 학습 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4) 한인들의 브라질 주수도(州首都)로의 이주

1990년의 시장개방, 1994년 헤알플랜(Plano Real), 1999년 1월 브라질의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상파울로市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한인들이 점차 브라질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 집권한 룰라정부의 조건부 소득이전프로그램인 Bolsa Família라는 사회정책의 수혜자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즉 브라질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브라질 북부와 북동부 지방까지 한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재브라질 한인사회 구성원들의 브라질 전역, 특히 26개州 州首都로의 이주는, 룰라정부의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브라질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과 그들의 구매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5) 21세기 제품의 현황

21세기 들어 나타난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특징은 그동안 이룩해낸 제품업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움직임과,⁴⁰⁾ 의상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는 2세들의 증가, 그리고 일부 성공한 제품업자들이 브라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망 장악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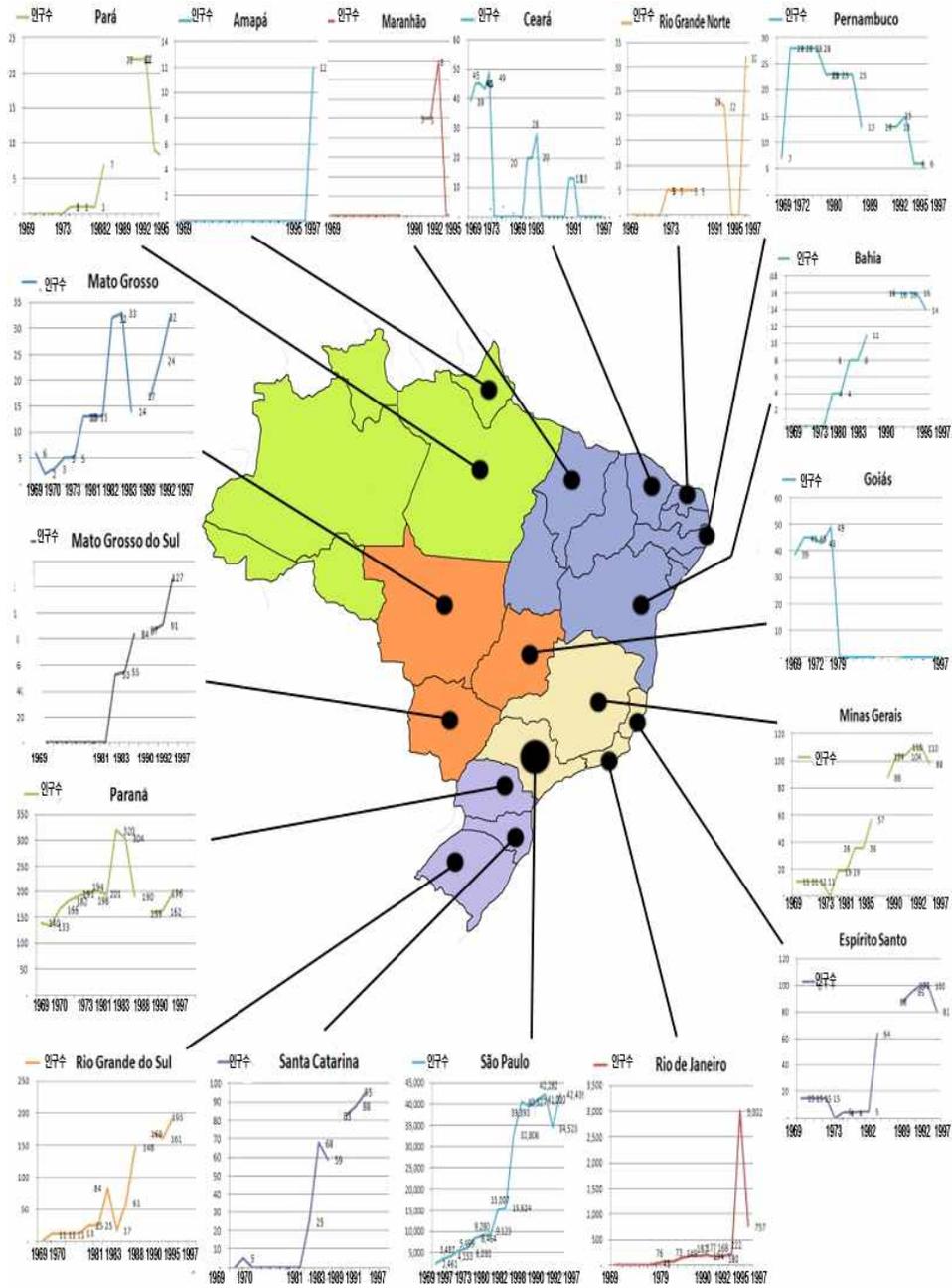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의류업계의 경쟁이 심해지자, 한인 제품업자들의 도·소매업 겸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제품의 규모가 큰 한국 기업가들은 자기만의 브랜드를 특화시켜, 브라질 전역을 대상으로 진출하고 있다. 콜린스(Collins)의 이원규 사장의 경우 올해 1월 자신의 매장 100호 점을 달성했다.⁴¹⁾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의상디자인은 물론 경영 마케팅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한 한인 2세들의 제품업으로의 흡수 때문이다.⁴²⁾

38)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qYQfGB0xBU0 (검색일: 2011.11.30)

39)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여, 다음과 같은 논문의 주제가 되고 있다. Pimenta, Thiago & Marchi Jr., Wanderley(2009), “A Constituição de um Subcampo do Esporte: O Caso do Taekwondo”, Movimento”, vol. 15, núm. 1, enero-marzo, 2009, pp. 193-215, Universidade Federal do Rio Grande do Sul, Porto Alegre, Brasil. in: <http://redalyc.uaemex.mx/redalyc/pdf/1153/115315234010.pdf>.

40) 콜린스(Collins)와 미로아(Miroa)와 같은 기업은 이미 2세들에게 승계 작업을 개시했다. Collins의 원래 모기업은 나비랑(Nabiran)인데, 브라질 사회에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상표를 바꾼 것이라고 한다.

41) 2012년 1월 22일 KBS의 <성공시대> 방영,



<그림 2> 재브라질 한인들 지역 분포도

출처: 외교통상부(2010)

42) 2008년 8월 이원규와의 인터뷰.

V. 나가는 글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한인들이 일본인들보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일본인들이 자식을 대학으로 진학시키는데 50년이 걸렸다면, 한국인들은 5개월 걸렸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런데 한인들이 이민역사 50년 만에, 세계 이민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브라질 일본인사회의 존재와 또한 일체강점기 그들과 함께 이주한 한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한국 본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 동안 세계 총생산이 6배 증가했다면, 한국의 총생산은 63배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개최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같은 국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 제2세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되었다. 즉 브라질 생활에 적응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문화정체성이 원심력으로 작용하여 사라져가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국제행사가 TV를 통해 방송됨에 따라, 브라질 사회에서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재브라질 한인의 수가 비록 5만 명 미만으로 정체되어 있지만,⁴³⁾ 그들의 경제활동과 문화정체성 유지 노력은 오늘날 세계화시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 타민족과의 결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브라질 사회와 문화로부터 폐쇄적이었다. 따라서 다른 인종과 문화로부터 모국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초장기의 한인 사회의 노력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어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은 너무도 강해, 오늘날 재브라질 한인회, 40여 개의 교회와 성당이 운영하는 주일학교와 그 밖의 사설 토요학교들, 한인사회의 경제적 성장력의 원천인 “계”의 유지, 다양한 공동 이익 단체, 동창회, 향우회, 한국과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신문사들, 그리고 자체적 라디오방송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은 바뀌어, 타민족과의 결혼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타민족과의 결혼은 학력이 높은 지식인 계층에서나 하류 계층에서만 일어났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

43) 그 이유는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에 혹은 지역과 지역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난한 지역에서 좀 더 부유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민의 특성상 한인들은 세계체제 속에 존재하는 국가 간의 소득격차 때문에 브라질보다 미국을 선호하였다. in: 최금좌, “신자유주의 시대 재브라질 한인 사회의 성격과 전망,”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총서』 (2007).

다.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브라질 사회의 상류계층과의 결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브라질 핵심사회(core society)로 들어가는 길임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는 최근 한류문화와 K-pop의 인기를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브라질사회에 한국의 문화를 알림으로써,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입지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한국제품의 판매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영국 런던대학 경제학 교수 앤서니 스미스(Anthony F. Smith)의 “세계화시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사라질 것 같았던 소수 종족이 세계 곳곳에서 다시 부활하는 현상에 대해, ‘민족이란 그것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죽음과 망각에 의연히 맞서도록 하는 집단적인 그리고 지상에서의 불멸성의 약속’이며, 오늘날 민족문화라는 것은 한 민족의 삶 속에서 형성된 생산물이자 민족의 지향과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 선도물의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 한다. 그는 민족과 민족문화가 현 시기 결코 소멸되거나 초월할 수 없는 개념으로, 초국적 자본주의가 막강한 힘으로 행사하는 국제적 단위의 통합에 맞서 그것을 상쇄하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민족이나 문화권들 고유의 동질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정체성과 또한 조직적인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보존 노력과 한국문화 확산 활동은 라틴아메리카 시장의 교두보인 브라질에서 한국 상품 판매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본국차원에서 재브라질 한인사회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안경자. “한인 교육·문화사.” 브라질 한인이민사 편찬위원회(편) 『브라질 한인 이민 50년사』 서울: 교음사, 2011.
- 전경수. 『브라질의 한국이민』. 서울: 서울대학교, 1991.
- _____. “브라질의 한국이민과 그 전개과정.” 『在外韓人研究』 창간호, (1990).
- 최금좌. “도시 쌍빠울로에서의 생활.” 브라질 한인이민사 편찬위원회(편) 『브라질 한인 이민 50년사』 서울: 교음사, 2011.
- _____. “브라질 상파울루市의 코리아타운 ‘봉헤찌로(Bom Retiro).’” 『재외한인 연구』. 제24호, (2011).
- _____. “삼바 춤을 출 수 없었던 재 브라질 한인 교포사회.”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2호, (2000).
- _____.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과 이민: Mercosur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18권 제1호, (2005).
- _____.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과 이민: NAFTA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17권 제1호, (2004).
- _____. “신자유주의 시대 재브라질 한인 사회의 성격과 전망.” 국사편찬위원회 (편) 『재외동포사총서』 2007.
- _____. “이야기 브라질 한국이민사: 전 보사부 차관 한국진과 초기 이민자 고향순을 중심으로.”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5권 2호, (2008).
- _____. “재브라질 한국이민사회: 세계화 시대 도전과 성취 그리고 전망.” 『중남미연구』 제25-2권, (2007).
- 해외교포문제 연구소. “남미 이민의 현실적 과제.” 『교포정책 자료』 제18집, (1978).
- _____. “브라질이민의 현황과 문제.” 『교포정책 자료』 제8집, (1969).
- _____. “이민의 전망과 과제.” 『교포정책 자료』 제16집, (1973).
- 현규환. “브라질편.” 『한국유이민사(下)』. 삼화인쇄(주)출판사, 1976.
- Choi, Keum Joa. “Além do Arco-Íris: A Imigração Coreana no Brasil(무지개를 넘어서: 브라질 한국 이민사).” 브라질 상파울로대학교(USP-Universidade de São Paulo) 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 Faria, Gentil de. “Beyond the Stereotypes of Orientalism: the Literary Image of Korea in Brazil”, in <http://www.igraria.com.br/Paper%20-%201CLA2010.pdf>. (2010)
- Gall, Norman. “Political Disorganization and Problems of Scale”, São Paulo Metropolis. Braudel Papers Nº 28, in <http://www.normangall.com/>

brazil art21eng.htm (2001)

GASPAR, Lúcia. Gilberto Freyre. Pesquisa Escolar Online, Fundação Joaquim Nabuco, Recife. Disponível em: <<http://basilio.fundaj.gov.br/pesquisaescolar>>. (2009)

Gilberto Freyre, Biblioteca Vitural in <http://bvfgf.fgf.org.br/portugues/index.html>
Joo, Jong Taik. culture and Ethnicity in the Korean Transnational Community in Brazil, 『이베로아메리카』 제2권 2호, (2010)

Leite, José Roberto Teixeira. Brazilian Asia (Korea-China-Japan): Images of the immigration and daily life of Asians in Brazil,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2002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으로 브라질 외무성이 만든 자료집).

Pimenta, Thiago & Marchi Jr.. Wanderley, “A Constituição de um Subcampo do Esporte: O Caso do Taekwondo”, Movimento”, vol. 15, núm. 1, enero-marzo, 2009, pp. 193-215, Universidade Federal do Rio Grande do Sul, Porto Alegre, Brasil. in <http://redalyc.uaemex.mx/redalyc/pdf/1153/115315234010.pdf>. (2009)

“Feras do vestibular: O enigma dos coreanos no Brasil”, in Veja São Paulo, 1998.05.13

Gusmão, Marcos Buarque de. “Muito além do Bom Retiro”, in Veja São Paulo, 2004.12.01.

KBS의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 “따봉 브라질—패션거리 봉혜찌로 한인 성 공기”, 2011년 1월 16일 방송

KBS의 프로그램 <성공시대> “패션의 신화: 이원규”, 2012년 1월 22일 방송

Canal de Televisão: TV CORÉIA, YTN(브라질 한국 위성 TV 방송자료)

브라질 한인회(『한인회보』) <http://www.haninbrasil.com.br>

남미 청소년들의 모임 (『하나로』) <http://www.hanaro.com>

COREA 닷컴 <http://www.corea.com.br/xe>

재외동포재단 <http://www.korean.net/intro.jsp>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consul/overseascitizen/compatriotcondition/index6.jsp?TabMenu=TabMenu6>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qYQfGB0xBU0(검색일: 2011.11.30)

<Abstract>

Korean Community in Brazil and their Cultural Identity

Choi, Keum Joa(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t end of the 20th century, the Korean Community in Brazil, which officially had arrived in fev. of 1963, emerged as an 'exemplary immigrant groups'.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1th century, it began to diffuse Korean Culture actively through the well-organized Korean Festival "Korea Culture Day". Doing this, the Korean Community in Brazil restores their pride and self-esteem, and further for Brazilians to get familiar with Korea and Korean Community in Brazil, narrowing the distance between Korea and the Korea Culture. That is, the Korean Community in Brazil is trying to have other take off, associating their economic activities with Korean Culture, and having a success of its commercialization,

In addition, in January 1999 Brazil's economic crisis triggered the diffusion of Korean Immigrants, who had lived concentrated in the city of São Paulo, to all over the Brazilian territory, specially to the capitals of 26 States. Their presence in all Brazilian States contribu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spread of Korean culture to all over the Brazil, as well as the commercialization of Korean products like vehicles. In addition, the nomination of 'Korea Town' to the district of Bom Retiro in 2010 by the São Paulo City Hall and the boom of K-pop are accelerating this trend.

Key words: Korean Community in Brazil, Korean Cultural Identity, Korean Festival, "Korea Culture Day", K-pop, the commercialization of Korean products

투 고 일: 2012년 4월 25일

심 사 일: 2012년 5월 18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4일